

우리나라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안정화 전략 방향

송원근(경남과기대)*

조영철(고려대)**

기획재정부, KDI, 조세재정연구원 등 현재 제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장기재정전망은 인구추계, 거시경제전망(경제성장률, 총공급과 잠재성장률, 물가 금리 및 임금과 같은 거시경제변수 등에 관한 전망)에 기초하여 재정전망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및 잠재경제성장률의 저하, 그리고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재정 수요의 확충 필요가 높아지면서, 4대 보험 등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함. 또 신정부 들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세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촉발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다음 3가지 차원(단계)에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첫째, 현재 통계청의 인구 추계 및 인구 전망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좀 더 정확한 인구추계를 기초로 한 재정전망치를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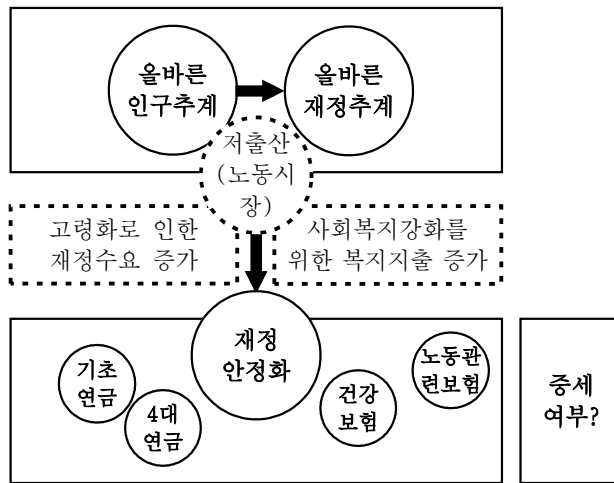
둘째, 달라진 인구추계 하에서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전망치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셋째, 이를 토대로 현재와 같이 재정안정화 중심의 보수적인 재정전략을 수정하여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구사할 경우 장기재정안정화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고찰함으로써 적극적인 재정지출의 논거로 삼을 수 있음.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참고] 연구 프레임워크



연구의 잠정적 결론으로서 재정안정화 전략은 현재와 같이 재정안정화에 입각한 보수적인 재정전략보다는 저출산, 청년 대책 및 복지확대에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잠재성장률을 상승, 재정수입 상승 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 재정전망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